

# KAIST 러플린 총장, “한국 과학 키워 미국 위협하겠다”

“내 생애 가장 큰 목표는 과학의 힘이 흐르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역동성있는 한국 과학도들을 키워 미국을 위협하겠다.”

199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자 최근 KAIST 총장으로 선임된 스탠퍼드대 로버트 러플린 교수의 당찬 포부다. KAIST 러플린 신임 총장은 “이번에 KAIST 총장 자리를 맡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에 민감한 한국을 발판 삼아 과학계 힘의 논리가 흐르는 방향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의 과학도들을 세계적인 리더로 세워 미국을 위협하고 싶다”고 밝혔다.

러플린 신임 총장이 유독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변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미국과 중국은 너무 커서 쉽게 변화하기 힘든 구조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은 규모가 맞아도 전기공업 기술이 수준 이하이며, 일본 역시 규모는 적당하지만 정부의 도움을 얻기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작고 민주주의도 잘 정착된 한국을 모델 삼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

특히 러플린 총장은 KAIST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돈을 많이 투입한데 비해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우수한 교수들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KAIST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이공계 대학이 되려면 우선 세계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KAIST의 수준이나 시스템이 상당 수준 올라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은 대학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밥 다인스 총장의 ‘이제 우리는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livery)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KAIST 연구개발의 배달(Delivery)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학생들과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길 좋아하며 교내에서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소탈한 성품의 러플린 신임 총장은 7월에 입국할 계획이다.

## 신제품 신기술

### 에빅사, 원격제어 솔루션 ‘네트로’ 개발



대덕밸리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벤처기업 에빅사(대표 이준표)는 웹 기반의 원격제어 솔루션 ‘네트로’를 6개월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순수 기업용 원격제어 솔루션으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자신의 사내 컴퓨터를 원격에서 제어하려면 기업 내부에서 고가의 VPN장비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제품은 VPN 보안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없이 원격제어를 실현할 수 있다. 가격대는 VPN 설치·운영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이 솔루션은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컴퓨터 내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은 물론, 파일전송과 각종 소리, 음성 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원격에서 마치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솔루션에는 이중 인증 과정과 패킷 암호화를 수행시켜 온라인상 어떠한 해커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안기능을 강화했으며 ‘블랙 스크린’과 키보드 및 마우스 잠금 기능을 뒤 원격 제어 중 타인의 컴퓨터 사용을 차단시켰다.

한편, KAIST 학부 1호 벤처기업인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기존 ‘와이즈현’에서 ‘에빅사’로 사명을 변경했다.